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 불멸의 업적

김 성 욱

조선로동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다.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였다.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장성강화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인것이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투쟁대오에 묶어세우는 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해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정녕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8월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우리의 미더운 남녀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커다란 믿음속에 주체105(2016)년 8월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조직으로서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투적기치로 내세운 역사적인 대회로 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고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였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것은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억년 드놀지 않는 기틀을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청년동맹일군들에게 직접 수여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에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을 전투적기치로 내세우시었다.

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 전당과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진로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전 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을 청년운동의 승리의 기치로, 청년동맹강화발전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청년동맹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까지 제때에 전달 침투되고 즉시에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이처럼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로부터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투적기치로 들고나가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명실공히 수령의 청년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의 청년강국으로 빛내어나갈수 있었다.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이다.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자양분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밝혀주시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교양체계운동을 실속있게 하고 그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여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당의 목소리가 중단없이 울리게 하며 청년들이 늘 청신한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체득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5대교양을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모든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준비시켜나가면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을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참된 애국자,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반체제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로,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워나갔다.

그리고 청년운동사적관을 통하여 청년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는 한편 모든 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고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비롯하여 청년기동예술선전활동도 힘있게 벌려 청년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정이 용솟음치게 하였다.

우리 당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억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뉘과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여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에 쏴아박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였다.

맨손으로 트랙토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진공적으로 벌린 선전선동공세는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과 열기가 차넘치게 하였다.

청년동맹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감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

의 강국건설념원과 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조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키운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어나가도록 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치자!》를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제시해주시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전설전투장들에서 단숨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담력으로 이 땅위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청년돌격대의 위력을 높이 펼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청년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되어있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건설과정에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은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4월과 9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다. 그리고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피뎌는 청춘의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의 청년들은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백두대지에 아로새기며 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 3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식을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준공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더 굳게 단결되었다고,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앞에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랑심을 지니고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스런 청춘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삼지연군을 조선혁명의 발원지답게 더 잘 꾸리며 전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백두산기슭에서 창조된 영웅청년신화와 더불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친구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용감성과 불굴의 기상을 높이 펼쳐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날린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을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